

[30 ~ 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 열쇠를 쫓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섰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서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서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 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뎌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넛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는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

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피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기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 **헌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나의 초라한 육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추수를 다시 갈아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파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을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점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따리 속에 몽텅이로 갇혀 있던 종이 뭉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려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32. 밑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 2017년 3월 시행,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1~23번(복합)

31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결핍은 ‘안’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안’은 ‘나’가 결핍의 상황에서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 ①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색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던 ‘나’의 모습은 ‘나’가 욕망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② ㉡: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 ‘나’가 ‘안’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나’로 하여금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이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가)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 윤씨 부인은 순인(順人) 차림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차림이불의 갈매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

“몸살인가 보다.”

윤씨 부인 역시 문갑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대꾸했다.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A]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갈이 드리워져 있었다. 처연한 모습이 다.

‘많이 늙으셨다.’

긴 눈매, 눈매 속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의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 치수는 어머니의 흠어진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여전하시다! 언제나 저 모습, 저 눈빛, 대장간에서 수천 번을 두드려 만든 쇠붙이 같오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맴돌았던 뜨거움은 싸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붙이와 쇠붙이었다. 싸움터에서 적과 적의 칼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쏘러 다니느냐?” /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치수는 햇빛이 부신 것처럼 눈 언저리를 좁힌다.

“뵈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니와 서희에게 어머니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결혼문제를 어제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너 생각이 그렇다면만 구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님.”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머니는 있어야겠구나.”

“그렇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흑이 하나 생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서울 가서 병을 얻어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은 생략되어 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회피**였었고 피차 부담을 덜어준 일이기도 했었다. 치수는 아직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무관하려 했고 그만큼 윤씨로서는 보다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셈이요,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그 굴레는 무거울수록 윤씨 부인이 원한 바였었는지 모른다.

무당 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갓과 무복이 펄럭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푹푹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별안간 월선네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다. / “아신 절로 가시야겠습니다.”

[중략 줄거리] 윤씨 부인은 의도치 않은 혼외 자식을 비밀리에 출산하려 절에 가게 된다. 어린 치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한다.

이듬해 이월달 꽃바람이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

2) 2017년 4월 시행,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34~37번(현대소설+ 시나리오복합)

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B]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왔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랍(白蠟)으로 빛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어머님!”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험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 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저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 박경리, 「토지」 -

(나)

S#58. 안방(낮)

병색이 완연한 윤씨가 ㉠ **차렵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소 리 ㉡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 **윤씨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들어오는 치수 양 무릎을 모으고 앉는다.

치수	㉣ 많이 편찮으신지요?
윤씨	몸살인가 보다.
치수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씨	그럴 것 없다.
치수	하오나…….
윤씨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치수	어려우실 모양입니다.
윤씨	근자에 가 보았더냐?
치수	못 가 보았습니다.
윤씨	그래서야 쓰겠느냐?
치수	사냥을 떠나기 전에 가 봐어 문안올리고 오겠습니다.
윤씨	산으로?
치수	예.

모자의 눈이 부딪친다. 열을 뽀다 서로의 눈이 싸늘히 굳어진다. 치수의 두 눈에서 O.L.*

S#59. 마당(회상)

김 서방 사랑채로 뛰어오며,

김 서방 도련님. 마님이 오십니다.

치 수 어머니님!

어린 치수 버선발로 토방을 건너 뛰어 마당에 내려선다.

치 수 ㉤ **어머님!**

대문계로 뛰어간다.

S#60. 대문 앞(동. 회상)

당도한 가마에서 내려선 윤씨. 얼굴빛이 밀랍처럼 창백하다. 치수를 보는 순간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윤씨.

치 수 (놀라서) 어머니님.

불꽃이 이는 듯한 윤씨의 두 눈.

*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34. (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3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다.
- ②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36. [A]와 [B]를 고려하여 (나)의 촬영 대본을 작성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에 언급된 내용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화감독은 촬영 대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의상, 소품, 녹음, 촬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된다. 이때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촬영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 ① ㉠: 시나리오에는 차렵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매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 ② ㉡: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 ③ ㉢: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 ⑤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37.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개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 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깐제.”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넬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궐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나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끼라. 백릿길을 김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김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카이. 김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를 몰았다.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중략)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牛舍), 마른똥만 똥구는 축사, 잡초 [A] 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 김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뵈야 그 빛 갚느라고 정심없다.”

(한 집에서 일 년에 한 번 쓰는 이앙기를 들여놓으면 그해 일 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날 말이다. ㉡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免稅油)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다. ㉢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주택 개량자금, 무슨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 인심줄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빛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개.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했다. ㉤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3)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국어 현대소설 33-36번

3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사람들 중에 황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 ②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로부터 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 ③ 황동수는 황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그가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재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이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실종으로 인해 모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 ⑤ 황재석 씨는 황만근의 평소 행적을 토대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는 농촌을 배경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농민 ‘황만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그 안에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 서로 도와가며 농사짓던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현실을 볼 수 있군.
- ③ ㉢: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 ④ ㉣: 기관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오히려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⑤ ㉤: 자신의 방식대로 소신껏 농사를 짓겠다는 인물의 우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35. <괄기대회>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며 비극적 사건을 유발한다.
- ② 이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 ③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민 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
- ④ 대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⑤ 민 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36.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말을 민 씨의 시선을 통해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황만근의 말을 인용해 민 씨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황만근의 삶을 민 씨의 반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④ 황만근의 처지가 민 씨의 말에 의해 과거와 대비되어 강조되고 있다.
- ⑤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말을 덧붙여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⁴⁾

<앞부분의 줄거리> ‘사내’는 한국 전쟁 중에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벌이다 그 대가로 일가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게 된다. 폐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사내’는 새 여인에게서 얻은 어린 아들을 맡기고 자신도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는다. ‘노인’은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 온 ‘사내’를 데리고 밤에 산을 오른다.

[A] 사내가 일어서서 골짜기 아래를 눈으로 더듬었다. 골짜기에서부터 부챗살처럼 펼쳐 나간 벌판에는 가득히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달빛, 달빛뿐이었다. 그 달빛에 사내는 어쩔지 눈이 시렸다. 사내는 마른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달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달빛 속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다. 사내의 귀에 가득히 쟁과리 소리가 밀물져 들어왔다. 사내는 바로 사내가 선 자리에 뼈를 묻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그만 가 보자.”

노인이 이번엔 앞장을 섰다. 등성의 가르마 길을 타고 오르자 산 중턱쯤에서부터 숲이 끊기고 벌거벗은 민둥산이 나타났다. 갑자기 산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서 그들을 허우적거리게 했다.

노인이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잡고 민둥산을 훑어보았다.

“버렸어. 산두 그때 다 버렸어. 포탄으루 맥이란 맥은 다 끊어 버리구…… 다야 니놈들 때문이여.”

사내도 노인의 시선을 따라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들을 보았다. 새삼스럽게 사내의 귀에는 광광 터쳐 나던 포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내가 마치 그것들을 털어 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빨리 말했다.

㉠ “가지라우.”

민둥산을 가로질러 다음 골짜기에 이르자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평지가 나왔다. 노인이 멈추어 섰다.

“여기여.”

노인이 사내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맥이 다치지 않은 데라군 이 산에서 여기뿐이여.”

사내는 평지의 잔술 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봉분들을 보았다.

사내가 얼굴에 두려운 기색을 떠올리며 봉분들에서 눈을 돌렸다.

“사죄해라. 이게 다 니놈 때문에 생기신 원혼들이여.”

“…….”

사내가 머뭇거리자 노인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재촉했다.

“아, 뭘 해? 빨리 없드려 잘못을 빌지 않구.”

사내가 가까운 봉분 앞에서 재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자, 노인이 뒤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게 울득이여.”

[B] 사내는 노인의 떨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회오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형언키 어려운 것들이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만공(滿空)의 달빛처럼 사내를 부풀리는 것이었다. 사내의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내려 마른 풀잎을 적셨다. 사내가 하나하나 봉분을 옮겨 가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노인은 뒤에서, 그제 당숙 둘째 자제여, 그제 사촌 형님 손자여, 그제 누여, 사내에게 일일이 소개를 했고, 그럴 때마다 사내는 잠깐씩 얼굴들을 떠올리곤 했다.

(중략)

노인은 다른 봉분들과는 달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한 봉분으로 사내를 데려갔다. 사내가 봉분 앞에서 없드리려 하자, 노인이 만류했다.

“그건 사죄할 필요 을다.” / “……?”

“그건 니놈이여.” / ㉡ “……예?”

노인이 차가운 시선으로 힐끗 사내를 쳐다보았다.

4) 2017년 10월 시행,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현대소설 36-38번

“아, 우린 죄다 니놈을 죽은 사람으로 치부했으니까. 설사 니놈이 살아 있는 걸 알았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니놈두 얹이 다른 원혼들을 묻는단 말이여?”

노인을 바라보는 사내의 표정에 일순 애매한 표정이 스치자 노인이 사내의 표정을 피했다.

“니놈은 호적에도 없다. 사망 신고를 했어. 살아남은 사람은 살어야 허니까…….”

사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 쿨룩, 쿨룩, 쿠루욱…… 온몸의 가래를 훑어 올리는 듯한 기침 끝에 사내는 한 울퉁의 피를 토해 냈다. 노인이 부욱, 두루마기 자락을 찢어 사내에게 내밀었다.

“뉘어라.” / 사내가 잠자코 두루마기 자락을 받아 얼굴과 손의 피를 씻었다. 흰 두루마기 자락에 핏빛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문득 사내의 눈에 달과 함께 수면에서 흔들리던 피 묻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사내가 말했다.

“아부님, 전 인제 아무 데도 못 가겠수.”

노인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니놈은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할 놈여.”

“아무래도 죽을 목숨이우.” / “죽드라두 타처에 가서 죽어라.”

“아부님.” / 사내가 노인 앞에 엎드렸다. ㉡ 노인이 백담 같은 표정으로 사내를 때치고 일어섰다.

“이 길루 곧장 떠나가라. 자식 놈은 내가 맡으마.”

노인과 사내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에는 달이 뜬 날 같은 연봉에 걸려 있었다. 사내가 노인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아부지, 그럼…….”

사내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어서 가.”

㉢ 사내가 몸을 돌려 비칠비칠 걷기 시작했다. 저만큼 멀어질 즈음에 노인이 사내의 등을 향해 외쳤다.

“죽게 되든 연락해라. 내 니놈 뒷수습은 해 줄 테니까.”

┌ 이윽고 노인은 앞이 칙칙해지면서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C] 않았다. 노인이 선 자리에서 나무토막처럼 푹 쓰러졌다.

└ 달이 졌다.

- 송기원, 「월행」 -

처가 아물지 않은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② ‘노인’이 ‘사내’의 ‘자식 놈’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심화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③ ‘사내’가 고향에 ‘뺨를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사내’에게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④ ‘노인’이 ‘사내’에게 ‘죽게 되든 연락’하라고 한 것은 ‘사내’가 죽기 전에는 귀향이 쉽게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⑤ ‘사내’가 봉분들 앞에서 재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 때문에 희생된 원혼들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8. [A]~[C]에서 ‘달’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인물의 시선에 포착된 ‘달빛’을 통해 인물이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제시되고 있다.
- ② [B]에서는 ‘달빛’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 ③ [C]에서는 ‘달’의 변화된 상황이 ‘사내’의 보이지 않게 된 상황과 조응하여 제시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이 지닌 소망이 ‘달빛’의 속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C]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달빛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3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아해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 인물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이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 인물의 단호한 태도가 표정과 행위 속에 드러나 있다.
- ⑤ ㉢: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60~1970년대에 많이 등장한 귀향 모티프 소설 중에는 고향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게 된 주인공이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며 귀향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월행」에도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시 찾은 고향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기에 주인공과 고향의 관계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던 주인공은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만, 고향은 그의 귀향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관련된 용서와 화해의 과제가 당대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 ①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은 전쟁의 상

정 답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현대소설(복합)
(2017년 3월 시행)

30.① 32.② 33.③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현대소설(복합)
(2017년 4월 시행)

34.② 35.② 36.④ 37.⑤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현대소설
(2017년 7월 시행)

33.③ 34.③ 35.① 36.①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현대소설(2017년 10월 시행)

36.⑤ 37.② 38.③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